

학령기 여아의 성숙시기가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신체적 자아상과 어머니 일상적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박하연¹⁾ 은선민²⁾ 박유경³⁾ 이강이⁴⁾

요약

이 연구는 학령기 여아의 성숙시기가 신체적 자아상과 어머니 일상적 스트레스를 매개로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아동패널 12차 자료를 사용하여 초등학교 5학년 여아와 어머니 549쌍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규범성숙 여아 보다 조기성숙 여아의 신체적 자아상이 낮았으며, 어머니 일상적 스트레스가 높았다. 둘째, 여아의 성숙시기는 내재화 문제행동에 간접효과만을 가졌다. 셋째, 여아의 성숙시기와 내재화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신체적 자아상 및 어머니 스트레스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내재화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아동이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지원하는 방안과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사춘기, 조기성숙, 신체적 자아상, 어머니 스트레스, 내재화 문제행동

I. 문제제기 및 선행연구 고찰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향한 사회적 관심의 촉구와 더불어 관련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학계의 다각도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우울과 불안, 위축 등의 증상을 포함한 내재화 문제행동은 학령기 및 청소년기 아동에게 찾아오는 가장 만연하고 다루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Nelson, Kidwell, Nelson, et al., 2018; Petersen, Lindhiem,

*) 이 논문은 제 12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2021.10.01.)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하고 보완한 것임.

1)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2)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3)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

4)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및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겸무연구원

LeBeau, et al., 2018). 최근 통계청과 여성가족부(2022)에서 발표한 「2022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의 26.8%가 지난 1년 동안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의 우울감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아동의 정신건강 현황을 살펴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지난 5년간 우울, 불안장애 등의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10세 이하 아동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한다(박진우·허민숙, 2021). 더욱이 학령기에는 구조화된 집단생활이 본격화되며 아동의 정서행동문제가 두드러지기 시작하고(조봉환·임경희, 2003), 청소년기와 성인기로 이어지며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행연구들은 학령기에 경험하는 내재화 문제가 성장 후에도 지속적인 부작용을 낳아 대인관계 해체, 자살 시도 등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Commisso, Temcheff, Orri, et al., 2021; Loukas, Cance, & Batanova, 2016).

특히 학령 후기 아동은 학업에 대해 늘어난 부담을 지각하고 중학교 진급을 걱정하는 등 과도기적 혼란을 경험한다(김연주·이지민, 2015). 빠른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는 2차 성장의 단계에 진입하고, 초기 청소년기로 이행해가면서 잦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기도 한다. 이는 학령 후기 아동이 경험하는 고유한 내재화 문제행동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한 연구의 축적을 요구한다. 나아가 내재화 문제행동은 여아에게서 차별화된 양상과 영향력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 남아가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외현화 행동으로 표출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에 비해 여아는 내면화된 증상의 발현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van Lier & Koot, 2010). 또한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보고된 여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은 고등학교 시기 학업 성취도와 부적의 상관을 보였으나, 이러한 연관성은 남아에게선 유의하지 않았다(Okano, Jeon, Crandall, et al., 2020).

학령기 여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성숙시기를 고려할 수 있다. 성숙시기(pubertal timing)란 개인의 성적(sexual), 신체적 발달 수준이 동일한 연령 및 성별의 또래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Ellis, 2004). 아동은 청소년기에 접어들며 자신이 또래집단과 유사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지 근심하고 외모에 대해 과도한 관심을 나타내는데(장휘숙, 2009), 특히 사춘기에 경험하는 성적 성숙의 시점이 동갑의 동성 또래와 다르거나 일반적이지 않다고 여겨질 때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불행감을 지각한다는 점에서(김예성·안재진, 2015) 성숙시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숙시기는 또래보다 더 이른 시기에 성적인 성숙을 경험하는 조기성숙과, 또래와 유사하게 평균적인 시점에 성숙하는 규범성숙으로 구분되며, 그중에서도 조기성숙은 주된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조기성숙 여아는 규범성숙 여아에 비하여

정서적으로나 인지적으로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화를 맞이하면서 내적으로 보다 취약하고 민감한 특성을 보인다(Rudolph, Troop-Gordon, Lambert, et al., 2014). 조기성숙 여아는 또래보다 성숙한 외모와 발달된 신체로 인해 어엿한 청소년 또는 성인과 유사한 역할수행을 요구받기도 하지만(Celio, Karnik, & Steiner, 2006), 다음 단계로 나아가갈 적절한 적응 기술이 부족하여 다양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생물학적 성숙도와 사회적 성숙도 간에 부조화(Ge & Natsuaki, 2009)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여아의 성숙시기와 내재화 문제행동의 관계를 증명하는 국외 선행연구 결과가 축적되어 있으나(Barendse, Byrne, Flournoy, et al., 2022; Crockett, Carlo, Wolff, et al., 2013; Hamlat, McCormick, Young, et al., 2020), 국내 연구는 상대적으로 현저히 부족한 편이다. 더욱이 성숙시기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메커니즘과 구체적인 발달 경로에 집중한 연구는 여전히 제한적(Alloy, Hamilton, Hamlat, et al., 2016)이다. 이에 최근에는 조기성숙이 내재화 문제행동을 발달시키는 기제를 밝힘으로써 두 변인 간 관련성을 통합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접근이 강조되고 있다(Deardorff, Cham, Gonzales, et al., 2013; Stojković, 2013). 특히 아동의 성적 성숙과 주변 사회적 관계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촉구되며, 또래와 부모, 사회문화적 영향 등을 고려하는 다방면의 탐색이 요구된다. 이는 조기성숙을 본질적으로 병리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용한데(Skoog & Stattin, 2014), 다시 말하면 조기성숙 여아가 본질적으로 문제행동에 취약한 것이 아니라 조기성숙과 연관될 수 있는 심리적, 사회적 요인에 더욱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여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생물학적 성숙 보다는 내적이고 관계적인 특성에 초점을 둔 실현가능한 개입 및 예방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가치를 확보하게 된다. 또한 그동안의 연구가 주로 서구권의 국가에서 이루어졌음을 감안했을 때, 한국 사회의 특수한 맥락을 고려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성숙시기와 내재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변인들을 탐색하고, 변인 간 관계의 유의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먼저 성숙시기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개인 내적 요인으로 신체적 자아상을 고려할 수 있다. 신체적 자아상이란 자신의 신체구조, 기능 및 외모에 대한 지각과 그로 인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 등을 총칭하는 심리적 개념이다(Grogan, 2006; Muth & Cash, 1997). 이는 스스로에 대한 감정, 태도와 연결되어 있어 학령 후기 아동의 주요 발달과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개념 형성의 핵심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이 시기의 여아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외모를 관찰하기 시작하며 신체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타인으로부터의 평가에 예민해지는 특성을 보인다(임진·김은정, 2012).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나타나는 체중

증가와 체형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청소년기 여아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날씬한' 몸의 기준에서 멀어지는 경향이 있고(Grower, Ward, & Beltz, 2019), 이러한 변화를 또래보다 이른 시기에 경험할 때 신체 만족도가 저하되거나 신체에 대한 부정적 신념을 형성할 위험이 있다(Williams & Currie, 2000; Zimmer-Gembeck, Webb, Farrell, et al., 2018). 즉, 조기성숙 여아는 또래보다 이르게 나타나는 급격한 신체적 변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아동의 심리정서적 문제로 이어질 우려를 낳는다.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기 및 성인기 여성의 신체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우울, 불안, 섭식장애 등 내면화 증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Beltz, 2018; Marengo, Longobardi, Fabris, et al., 2018).

사춘기 시기의 심리적 혼란과 변화는 당사자뿐 아니라 부모자녀 관계의 역동에도 변화를 야기한다. 학령기 자녀와의 상호작용 빈도가 높고 의사소통의 주대상이 되는 어머니는 자녀의 성적 성숙으로 인해 새롭게 부여된 과업과 역할수행에 맞닥뜨릴 수 있다. 여아가 2차 성징을 시작할 때 어머니는 관련 보건 및 건강 교육을 시행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가장 믿음직한 인물(Afsari, Mirghafourvand, Valizadeh, et al., 2017)로 인식된다. 우리나라 여아를 대상으로 초경 시 가장 먼저 의논하는 상대를 조사한 결과, 어머니라는 응답이 83.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조현하·김지은, 2012). 이는 여아의 사춘기 발달 과정에서 어머니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진 가족구성원으로서 자리 잡은 현실을 보여준다. 이때 어머니는 자녀의 성숙으로 인한 당혹감과 관련 지식의 부족을 체감하거나, 그동안 금기시되어왔던 성(性)을 주제로 자녀와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좌절을 느끼는 등(Crichton, Ibisomi, & Gyimah, 2012) 복합적인 정서를 경험할 수 있다.

더욱이 자녀의 성숙이 이른 시기에 찾아온다면, 이는 어머니에게는 심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겪는 변화이자 위기의 사건(Steinberg, 1987)으로 작용하여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리란 예측이 가능하다. 선행연구는 조기성숙 여아를 둔 어머니가 당사자인 자녀와 유사한 성숙 불안(Pinyerd & Zipf, 2005)을 경험하거나, 자녀가 담배나 술과 같은 물질남용, 또래관계 문제, 위험한 성행위 등에 더 빨리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Celio, Karnik, & Steiner, 2006)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 일반적으로도 자녀가 청소년이 되면 부모자녀 간 친밀도의 감소, 갈등의 증가, 통제력과 보상의 감소 등 다양한 가정 내 어려움이 발생함을 고려했을 때(Marceau, Abar, & Jackson, 2015), 조기성숙 자녀를 둔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더욱 높아질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 그리고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자녀의 내면화 문제(Bakoula, Kolaitis, Veltsista, et al., 2009; Stone, Mares, Otten, et al., 2016)에 영향을 미치고, 유사한 맥락에서 자녀의 정서조절

(박윤조·송하나, 2018)과 스트레스(이진화, 2018)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종합하자면, 학령기 여아의 성숙시기는 신체적 자아상과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매개로 내재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사춘기에 따른 변화가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성숙시기와 연관된 부적응적 결과 역시 아동의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포함한 다중의 영역에 걸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Mendle, Turkheimer, & Emery, 2007). 더욱이 Skoog와 Stattin(2014)은 오늘날 아동의 성숙시기와 문제행동의 관계를 다루기 위해서는 아동이 주변 환경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개인 특성만이 아닌 관계적 메커니즘의 영향력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관점을 강조한 바 있다. 즉, 이 연구는 학령기 여아의 신체적 자아상과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하나의 구조 모형에서 성숙시기와 내재화 문제행동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한국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조사 12차년도(2019년)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연구참여자는 549쌍의 초등학교 5학년 여아(만 11세)와 그 어머니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아와 어머니로 이루어진 전체 응답자 687쌍 중에서 어머니가 어머니용 설문지에 직접 응답하지 않거나, 보호자 방문면접조사로 측정되는 종속변인 응답이 결측된 101명을 제외하였으며, 아동의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이하 BMI)가 23.6 이상인 37명을 추가로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549쌍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여아의 조기성숙은 비만과 밀접한 상관을 가지므로(Alberga, Sigal, Goldfield, et al., 2012) 조기성숙의 심리사회적 영향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만과의 연관성을 통제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소아청소년의 비만은 BMI를 성별, 연령별 백분위수 도표에 대비하였을 때 95백분위수 이상인 경우로 판단한다(질병관리본부, 2017). 연구참여자 여아의 평균 월령은 136.4개월 ($SD = 1.52$)로 나타났으며, 201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질병관리본부, 2017)에서 136개월 여아 BMI의 95백분위수가 23.6으로 보고된 점에 근거하여 비만군에 속하는 아동을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평균/빈도	
아동 BMI		18.48kg/m ²	(SD = 2.45)
어머니 연령		42.18세	(SD = 3.78)
어머니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145명	(26.7%)
	전문대 졸업	151명	(27.9%)
	대학교 졸업	209명	(38.6%)
	대학원 졸업	37명	(6.8%)
어머니 취·학업 상태	미취·미학업 중	210명	(39.2%)
	취·학업 중	325명	(60.8%)

2. 연구도구

가. 성숙시기

아동의 성숙시기는 한국아동패널 12차년도 데이터에서 보호자 대상으로 조사한 자녀 2차 성징의 발현 여부 문항(“OO(이)는 몽정(남아) 또는 초경(여아) 등 2차 성징이 나타났습니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예’로 응답한 경우 조기성숙으로, ‘아니오’로 응답한 경우 규범성숙으로 구분함으로써 더미변수를 생성하였다(0: 규범성숙, 1: 조기성숙). 즉 12차년도 조사가 이루어진 5학년 시기에 초경을 시작하지 않은 규범성숙 여아는 412명, 5학년 또는 그 이전 시기에 초경을 시작한 조기성숙 여아는 137명이었다. 이러한 구분은 최근 우리나라 여아의 평균 초경 연령이 12.6세로 나타난 연구결과(Seo, Kim, Juul, et al., 2020)와 더불어 여아의 초경 연령에 따라 집단구분을 실시해 온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였다. 초경은 사춘기 전환의 가장 두드러지는 생물학적 사건이기에 초경 연령은 사춘기 발달 및 성숙시기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가 된다(Celio, Karnik, & Steiner, 2006). 선행연구에서는 11세 이하에서 초경을 시작한 여아를 조기성숙 집단으로 정의하고, 그 이후 초경을 시작한 경우 규범집단 또는 대응집단으로 구분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Gaysina, Richards, Kuh, et al., 2015; Mrug, Elliott, Davies, et al., 2014). 또한 조기성숙 여아에 비해 정시에 성숙하거나 심지어 늦게 성숙하는 여아에 대한 우려는 제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Graber, 2013) 조기성숙과 규범성숙의 두 집단으로 대응하여 구분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나. 신체적 자아상

아동의 신체적 자아상은 한국아동패널 12차년도 데이터에서 Mendelson과 White(1982)가 개발한 'Body-Esteem Scale' 척도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보완한 4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문항 예시에는 '나는 내 외모에 만족한다' 등이 있다. 응답은 아동의 자기보고로 이루어지며, 4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4: 매우 그렇다)로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긍정적인 신체적 자아상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도록 코딩하였다.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항5('나는 내 키에 만족한다')의 요인부하량이 .30으로 수렴타당성이 낮게 나타나 이를 제외한 4문항을 사용하였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79로 양호하였다.

다.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

어머니 일상적 스트레스는 한국아동패널 12차년도 데이터에서 조사한 부모의 개인 심리적 특성 변인으로서, 어머니가 직접 응답하는 단일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단일문항의 스트레스 척도는 여성의 일상적 스트레스(Vines, Nguyen, Ta, et al., 2011), 직장인의 업무 스트레스(Elo, Leppänen, & Jahkola, 2003), 노년층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Littman, White, Satia, et al., 2006) 등을 대상으로 폭넓게 활용되며 그 타당성이 검증되어왔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은 '귀하는 평소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습니까?'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대한 응답은 4점 리커트 척도(1: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음 ~ 4: 스트레스를 많이 받음)로 측정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라. 내재화 문제행동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은 한국아동패널 12차년도 데이터에서 오경자와 김영아(2010)가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 6-18)의 증후군 척도 중 내재화 문제행동 요인을 사용하였다. 세 가지 하위영역인 '불안/우울' 13문항, '위축/우울' 8문항, '신체증상' 1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문항 예시로는 '신경이 날카롭고 곤두서 있거나 긴장되어 있다' 등이 있다. 아동의 보호자가 응답하며,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0점)', '가끔 그렇거나 그런 편이다(1점)',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2점)'의 범위에서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하위영역별 원점수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문제행동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하위영역별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615~.713으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마. 통제변인

어머니와의 애착이 초기 청소년기 아동의 우울 및 문제행동(Duchesne & Ratelle, 2014; Moss, Bureau, Béliveau, et al., 2009)과 연관되어 있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어머니 애착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어머니 애착은 한국아동패널 12차년도 데이터에서 Armsden과 Greenberg(1987)의 원척도를 이정림·김지현·이규림 외(2017)가 타당화한 번안본에 대해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한 12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아동의 자기보고로 이루어지며, 모든 문항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아니다 ~ 5: 항상 그렇다)로 응답한다. 어머니 애착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45로 양호하였다. 또한 어머니 연령, 교육수준과 취·학업 상태를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였다. 이는 어머니 연령,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자녀의 내재화 문제(Carneiro, Dias, & Soares, 2016; Eley, Liang, Plomin, et al., 2004; Park, Heo, Subramanian, et al., 2012)와 연관되어 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에 근거하였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4년제 대졸을 기준으로 더미 코딩하였고(0: 4년제 대졸 해당 없음, 1: 4년제 대졸 해당), 취·학업 상태 역시 더미 코딩하여 사용하였다(0: 미취·미학업 중, 1: 취·학업 중).

3. 자료분석

자료는 Stata Version 17.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변인들에 대하여 기초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일반적 경향과 자료의 정규성을 확인하였으며,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변인들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둘째,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하여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아동의 신체적 자아상 및 내재화 문제행동을 잠재변인으로 설정하였으므로, 해당 변인이 적합한 측정변인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고자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구조모형 검증을 통해 전체 연구변인들 간 경로를 확인하였으며,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로는 χ^2 값과 더불어 TLI, CFI, RMSEA 값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결측치 처리에 대해서는 결측치가 포함된 최대우도법을 이용하였다. 셋째, 연구모형에서 매개효과를 설정하였으므로 Sobel 검증을 사용하여 매개변수의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기초분석 결과

연구 주요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은 <표 2>와 같다. 먼저 신체적 자아상 평균은 규범성숙과 조기성숙 여아가 각각 3.09점($SD = .54$), 2.96점($SD = .57$)으로, 조기성숙 여아의 신체적 자아상이 유의하게 낮은 평균점수를 보였다.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규범성숙 여아를 둔 어머니($M = 2.87$, $SD = .63$)에 비해 조기성숙 여아를 둔 어머니($M = 3.01$, $SD = .63$)가 유의하게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다.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은 규범성숙과 조기성숙 여아에게서 각각 2.97점($SD = 3.77$), 3.31점($SD = 3.83$)으로 보고되어 조기성숙 여아의 내재화 문제행동 평균점수가 조금 더 높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주요변인들 모두 왜도의 절댓값이 3 미만, 첨도의 절댓값이 10 미만으로 나타나 구조방정식모형에서의 정상분포 조건을 만족하였다(Kline, 2010).

<표 2> 성숙시기에 따른 연구변인의 일반적 경향

측정변인	규범성숙		조기성숙		<i>t</i>	왜도	첨도
	<i>N</i>	<i>M (SD)</i>	<i>N</i>	<i>M (SD)</i>			
신체적 자아상	407	3.09 (.54)	137	2.96 (.57)	2.28*	-.21	2.68
어머니 일상적 스트레스	397	2.87 (.63)	129	3.01 (.63)	-2.06*	-.00	2.62
내재화 문제행동	412	2.97 (3.77)	137	3.31 (3.83)	-.91	2.01	8.07

* $p < .05$.

측정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성숙시기는 신체적 자아상과 대체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을 가지고,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유의한 정적상관, 내재화 문제행동 중 위축/우울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적 자아상,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 측정변인 역시 내재화 문제행동 측정변인과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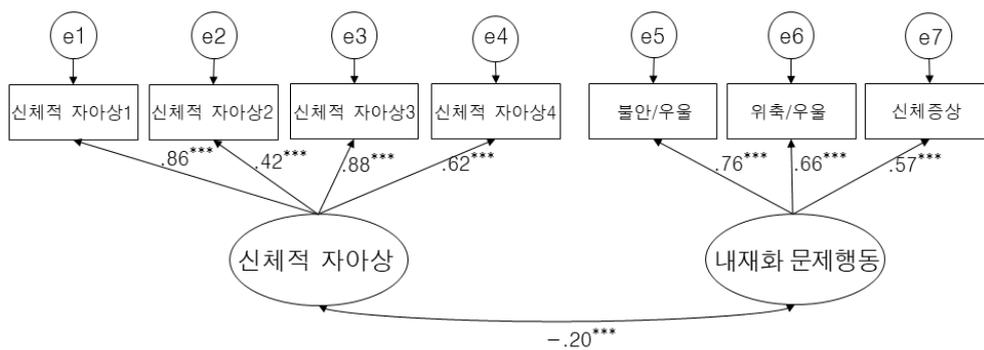
〈표 3〉 측정변인들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 성숙시기	-								
2. 신체적 자아상1	-.10*	-							
3. 신체적 자아상2	-.06	.34***	-						
4. 신체적 자아상3	-.09*	.77***	.35***	-					
5. 신체적 자아상4	-.16***	.53***	.41***	.54***	-				
6. 어머니 일상적 스트레스	.09*	-.05	-.08	-.04	.03	-			
7. 불안/우울	.04	-.11*	-.03	-.10*	-.05	.21***	-		
8. 위축/우울	.13**	-.16***	-.04	-.17***	-.08*	.16**	.50***	-	
9. 신체증상	-.05	-.11**	-.07	-.09*	-.05	.19***	.44***	.37***	-

* $p < .05$, ** $p < .01$, *** $p < .001$.

2. 측정모형 검증

연구변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아동의 신체적 자아상 및 내재화 문제행동 잠재변인이 측정변인들에 의해 타당하게 설명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적합도는 $\chi^2 = 37.38$ ($df = 13$, $p < .001$), TLI = .965, CFI = .978, RMSEA = .059로 양호하게 나타나, 본 연구의 측정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어서 측정모형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을 살펴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요인부하값들은 .42~.88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1$).



[그림 1] 측정모형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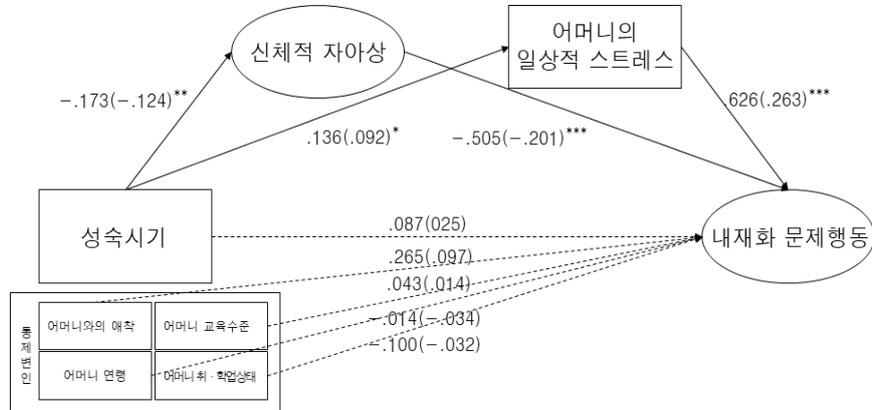
3. 구조모형 검증

연구 주요변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한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때 어머니와의 애착, 어머니 연령, 교육수준 및 취·학업 상태가 내재화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였다. 그 결과 $\chi^2 = 119.25$ ($df = 52$, $p < .001$), TLI = .927, CFI = .944, RMSEA = .049로 적합도 지수가 양호하게 나타나, 구조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변인들의 경로별 모수추정치는 <표 4>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먼저 독립변인인 여아의 성숙시기에서 종속변인인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으로 이어지는 직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숙시기에서 매개변인인 여아의 신체적 자아상 및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로 향하는 직접 경로는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매개변인인 신체적 자아상 및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종속변인인 내재화 문제행동과의 직접 경로에서 각각 유의한 영향을 보고하였다. 변인들 간 경로를 토대로 효과 분해를 실시한 결과, 성숙시기는 내재화 문제행동에 유의한 간접효과($\beta = .172$, $p < .01$)만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구조모형의 모수추정치

경로	<i>B</i>	β	<i>SE</i>
성숙시기 → 내재화 문제행동	.087	.025	.173
성숙시기 → 신체적 자아상	-.173**	-.124	.064
성숙시기 →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	.136*	.092	.064
신체적 자아상 → 내재화 문제행동	-.505**	-.201	.136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 → 내재화 문제행동	.626***	.263	.119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 연구 주요변인들의 구조적 관계

* $p < .05$, ** $p < .01$, *** $p < .001$.

4. 매개효과 검증

구조모형에서 간접 경로를 통한 각 매개변인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신체적 자아상과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의 매개효과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규범성숙 여아에 비해 조기 성숙 여아가 자신의 신체를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불만족할수록 내재화 문제행동 수준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조기성숙을 경험하는 여아의 어머니는 더 높은 일상적 스트레스를 지각하고,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아동이 더욱 불안하고 위축되는 등 내면화된 문제를 보인다는 점을 의미한다.

<표 5> 매개경로의 Sobel 검증 결과

경로	z
성숙시기 → 신체적 자아상 → 내재화 문제행동	2.19*
성숙시기 →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 → 내재화 문제행동	1.97*

* $p < .05$.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와 이를 토대로 한 함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령기 여아의 신체적 자아상과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은 여아의 성숙시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기성숙 여아는 규범성숙 여아에 비해 부정적인 신체적 자아상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조기성숙 여아를 둔 어머니는 규범성숙 자녀를 둔 어머니에 비해 높은 일상적 스트레스를 보고하였다. 이는 여아가 조기성숙을 경험할 때 신체에 대한 부정적 신념을 형성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Grower, Ward, & Beltz, 2019; Williams & Currie, 2000; Zimmer-Gembeck, Webb, Farrell, et al., 2018)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어머니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에서의 차이는 기존 연구들이 주로 자녀가 성조숙증 진단을 받은 어머니의 정서적 어려움(Pinyerd & Zipf, 2005; Schoelwer, Donahue, Didrick, et al., 2017)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성조숙증은 여아의 경우 8세 이전에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의학적 질환(Oerter Klein, 1999)으로 조기성숙과는 구별되는 증상이기 때문이다. 조기성숙 자녀를 둔 어머니는 성조숙증 관련 처치를 받는 자녀를 둔 어머니와는 또 다른 정서적 경험을 할 수 있으나, 이들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그 차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밝혀진 바가 적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조기성숙 여아를 둔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결과는 자녀의 사춘기 진입을 앞둔 가족에 대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학령기 여아의 성숙시기는 내재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기성숙 여아가 위험감수 행동에 관여하거나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다수의 선행연구(Barendse, Byrne, Flournoy, et al., 2022; Crockett, Carlo, Wolff, et al., 2013; Hamlat, McCormick, Young, et al., 2020)는 성숙시기에 따른 직접적인 부정적 결과에 초점을 두고 수행되어온 한계가 있다. 즉 조기성숙 여아의 취약성이 조기성숙 경험 그 자체로부터 야기된 것인지, 혹은 내적, 관계적 경험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조기성숙이 개인의 의식적 노력과 개입에 따라 변화하기 어려운 현상임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조기성숙 여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다루기 위한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학령기 여아의 신체적 자아상과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성숙시기와 내재화 문제행동의 관계를 각각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조기성숙 여아는 규범

성숙 여아에 비해 자신의 신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이러한 태도가 내면화되고 과잉 통제된 문제의 증가로 이어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에는 이상적인 신체상에 대한 한국 사회의 경직된 기준과 또래규범이 작용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청소년기로 접어들며 아동들은 외모 관심이 높아지고 사회문화적 기대에 부합하는 신체상을 빠르게 인지하고 의식하는 경향이 있으며(Veldhuis, Konijn, & Seidell, 2014), 관심사를 공유하는 또래집단을 통해 사회의 규준과 기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때문이다(Jones & Crawford, 2006). 즉 조기성숙 여아는 다수의 또래와 구별되면서 사회문화적 이상과 거리가 있는 체형변화를 먼저 경험하고, 그 결과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감이 감소하리란 추측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집단소속감과 대인 간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김현옥·권동택, 2008)에서는 또래와 외적인 특성을 공유하고 동조하는 것이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다(Jackson & Chen, 2008). 그리고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의 주축이 되어 내재화 문제행동과 같은 부적응적 발달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종합했을 때, 본 연구결과는 조기성숙 여아가 경험할 수 있는 내면화 문제행동을 방지하거나 중재하기 위해 아동의 건강한 신체적 자아상 발달을 조력하는 환경조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조기성숙 여아의 어머니는 규범성숙 여아의 어머니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지각하고,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자녀의 내재화 문제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사춘기에 진입하며 겪는 변화와 혼란은 어머니로 하여금 기존의 양육 방식을 무력화시키며 피로감, 좌절 등 부정적 정서와 스트레스를 지각하게 만든다(박태경·박재연, 2018). 또한 여아의 경우 자신의 성적 성숙과 관련된 경험 및 생각을 공유하는 대상으로 어머니를 선호하는데(Sooki, Shariati, Chaman, et al., 2016), 이는 조기성숙 여아의 어머니가 또래 여학생의 어머니보다 먼저 양육과 일상에서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고충을 겪게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어머니는 자녀가 빠른 초경을 경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최정아·이재림·김영선, 2021), 자신의 기대보다 이른 시점에 맞닥뜨린 자녀의 변화 앞에서 어머니가 감당해야 하는 성숙 불안과 역할 부담은 더욱 클 것이란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부모자녀 관계에서 성(性)에 관한 부분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어, 많은 부모들이 자녀와 성을 주제로 의사소통을 나누거나 직접 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어려워한다(석태중, 2003; 소수연·안지영·양대회 외, 2014). 아이들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동성의 또래와 더 잦은 성 관련 의사소통을 하며 고민을 의논하거나 성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서로 간 동질감과 친밀감을 정립해간다. 그러나 조기성숙 여아는 사춘기 발달에 관련된 정보가 더욱 필요함에도 주변 또래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이 제한적이

며(박광숙·이영희·고성희, 2012), 학교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는 경험과 기회 역시 한계를 가진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어머니가 수행하는 다방면적 역할과 부담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조기성숙 여아를 둔 어머니는 자녀가 아직 사춘기를 통과하기에는 이르다는 생각과 그림에도 관련 교육을 직접 시켜야한다는 모순을 지각하는 등(Crichton, Ibisomi, & Gyimah, 2012) 일상생활에서 늘어난 스트레스를 인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빈번한 훈육과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상호작용의 철회 등을 초래하며 자녀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종합했을 때, 조기성숙 여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녀 사춘기 발달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전달하고 관련 대처전략을 제공하는 등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단일문항을 사용하여 성숙시기와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파악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여아의 조기성숙 지표와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세밀하게 측정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사춘기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물학적 변인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후속연구에서는 호르몬 수치와 같은 생리적 변수를 통제함으로써 여아의 성숙시기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킨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연구의 자료수집 시점에 규범성숙 집단으로 구분되었던 여아가 이후에 조기성숙 집단으로 재범주화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장기적인 추적조사를 통해 학령기 여아의 조기성숙이 내면화 문제행동에 누적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한다면, 조기성숙이 야기하는 심리적, 관계적 취약성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를 해석할 시에 앞서 언급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V.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을 하고 시사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령기 여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령에 따른 발달 특성 및 관계 맥락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학령기 여아의 내재화 문제행동 예방을 위해 아동의 조기성숙에 주목할 수 있다. 단, 이 연구의 결과와 더불어 조기성숙이 개인의 의식적 노력과 외부 지원에 따라 크게 변화하기 어려운 현상임을 고려했을 때, 조기성숙으로부터 파생되는 아동과 어머니의 심리·정서적 경험에 대한 검토가 동반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학령기 여

아의 성숙시기가 아동이 느끼는 신체적 자아상과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 신체적 자아상에 대한 파악과 어머니 심리 지원을 통한 예방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현행 제도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 내재화 문제행동 예방을 비롯한 아동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보다 통합적인 접근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학생의 정서·행동 발달상의 문제를 발견하고 내재화 문제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보건법」 제2조 및 제7조와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의3에 근거하여 매년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때 초등학교 1, 4학년 대상의 검사는 학부모용(CPSQ-II)이며, 아동의 성격과 학부모가 느끼는 스트레스를 측정한다. 이러한 검사에 더하여 아동의 성적 성숙도와 신체적 자아상을 함께 살펴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측정하고 있는 어머니 스트레스 수준에 주의를 기울이고, 검사 결과에 따라 전문 상담기관 연결이나 자조모임 결성, 역량 강화 교육 등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조기성숙이 나타난 여아와 그 어머니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외에도 1년 주기의 단축형 추가 검사를 통한 추적 조사를 진행하여 신체적 자아상에 대한 변화와 어머니의 스트레스 추이를 확인하고 보다 장기적인 개입을 계획해 볼 수 있다.

둘째, 학령 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 이때의 성교육은 개별 학교 재량에 맡기는 것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접근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성교육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개발할 때는 조기성숙을 경험한 여아가 주기적으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학교 보건교사와 Wee 클래스 상담사의 담당 역할로 교사와 아동 간 1:1 상담 세션을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자녀 성교육과 관련하여 부모의 참여를 높이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초등 고학년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은 일시적인 프로그램들로,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주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서비스는 매우 제한적이다. 반면 아동의 성적 성숙과 사춘기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적합한 대응방식을 알고자 하는 부모의 요구도는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다(최정아·이재림·김영선, 2021).

아동과 어머니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역시 절실하다. 가령, 초등학교 5, 6학년 자녀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이 아동의 건강한 성 의식 형성과 부모자녀 관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밝혀졌다(홍현정, 2022). 이와 더불어 학령기 여아의 조기성숙이 아동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아동과 부모를 모두 포함한 성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뒷받침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누구나 쉽게 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들이 일상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 교육 매뉴얼(여성가족부, 2018)에는 자녀 성교육 및 사춘기 준비와 관련된 교육내용으로 성숙시기에 대한 설명이나 그 영향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연구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조기성숙 여아가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관계적 취약성과 내재화 문제행동과의 연관성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과 정보를 제공한다면, 더욱 풍부하고 유용한 교육적 접근이 이루어질 것이다.

종합했을 때, 아동과 부모가 때로는 함께, 때로는 각각 참여할 수 있는 성교육 프로그램의 고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차 성징과 관련한 정보는 아동과 부모가 함께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이 타인과의 외모 관련 비교행위를 지양하고 내면적 가치에 무게를 두도록 지원하는 자기역량강화교육 등은 아동에게 초점을 둘 수 있다. 아동이 스스로에 대해 평가하는 신체적 자아상의 경우 캠페인의 개발 및 적용을 통해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어머니 대상 부모교육·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때는 성적 성숙과 이로 인한 변화에 대해 부모와 자녀가 개방적이고 긍정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정보를 제공하고, 어머니의 불안을 다루는 상담 세션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어머니들은 사춘기 초입에 진입한 자녀의 신체적·심리적 변화를 느끼는 것과 동시에, 자신 또한 중년기의 징후를 맞이해 감정기복이 생기고 예민해지는 등의 정서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정아·이재림·김영선, 2021). 조기성숙 여아와 어머니가 경험하는 심리·정서적 변화에 주목한 지속적인 지원 및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학령기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연주·이지민(2015).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청소년 전환기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가정과삶의질연구*, 33(1), 1-17.
- 김예성·안재진(2015). 사춘기 성숙시기에 따른 여자청소년들의 적응에 관한 연구: 공격성과 학교규칙 준수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41, 39-63.
- 김현욱·권동택(2008). 초등학생 별명의 특성과 사회적 상호관계 분석. *교육실천연구*, 7(1), 75-98.
- 박광숙·이영희·고성희(2012).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사춘기 체험. *질적연구*, 13(2), 79-91.

- 박윤조·송하나(2018).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아동의 인지조절 및 정서조절이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8(1), 27-51.
- 박진우·허민숙(2021).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현황, 지원제도 및 개선방향.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 박태경·박재연(2018).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 효과성 연구: 우울, 자존감, 자기개념 명확성 중심으로.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8(2), 783-791.
- 석태종(2003). 한국 성교육의 한계와 향후 과제. *교육학연구*, 41(2), 381-399.
- 소수연·안지영·양대희·김경민(2014). 초기 청소년기의 변화에 대한 부모-자녀의 인식에 관한 연구. *Korea Journal*, 22(1), 247-279.
- 여성가족부(2018). 부모교육 매뉴얼 7권(초등학생 부모). 서울: 여성가족부.
- 오경자·김영아(2010).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매뉴얼. 서울: 휴노컨설팅.
- 이정림·김지현·이규림·조혜주·임중환(2017). 한국 어린이 성장 발달 코호트 모형 구축 및 타당화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진화(2018).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일상적 스트레스와 행복감이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21*, 9(5), 1051-1064.
- 임진·김은정(2012). 청소년의 실제-이상 자기 불일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과 반추적 반응양식을 매개변인으로. *청소년학연구*, 19(1), 279-306.
- 장휘숙(2009). 성인초기의 발달과업과 행복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1), 19-36.
- 조봉환·임경희(2003).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729-746.
- 조현하·김지은(2012). 일 지역 여중생의 초경정서, 초경지지, 부모-자녀 의사소통, 월경태도.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6(2), 238-251.
- 질병관리본부(2017). 201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해설집. 청주: 질병관리본부.
- 최정아·이재림·김영선(2021). 초기 사춘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실천과 모-자녀관계의 재구성: 초등학교 4학년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8, 157-185.
- 통계청·여성가족부(2022). 2022 청소년 통계. 대전: 통계청, 서울: 여성가족부.
- 홍현정(2022). 초기청소년의 부모-자녀 협력형 성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 연구. *청소년학연구*, 29(4), 357-385.
- Afsari, A., Mirghafourvand, M., Valizadeh, S., Abbasnezhadeh, M., Galeshi, M., & Fatahi, S. (2017). The effects of educating mothers and girls on the girls' attitudes toward puberty health: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International Journal of Adolescent Medicine and Health*, 29(2), 1-7.

- Alberga, A. S., Sigal, R. J., Goldfield, G., Prud'Homme, D., & Kenny, G. P. (2012). Overweight and obese teenagers: Why is adolescence a critical period? *Pediatric Obesity*, *7*(4), 261-273.
- Alloy, L. B., Hamilton, J. L., Hamlat, E. J., & Abramson, L. Y. (2016). Pubertal development, emotion regulatory styles, and the emergence of sex differences in internalizing disorders and symptoms in adolescence. *Clinical Psychological Science*, *4*(5), 867-881.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4.
- Bakoula, C., Kolaitis, G., Veltsista, A., Gika, A., & Chrousos, G. P. (2009). Parental stress affects the emotions and behaviour of children up to adolescence: A Greek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Stress*, *12*(6), 486-498.
- Barendse, M. E. A., Byrne, M. L., Flournoy, J. C., McNeilly, E. A., Guazzelli Williamson, V., Barrett, A.-M. Y., Chavez, S. J., Shirtcliff, E. A., Allen, N. B., & Pfeifer, J. H. (2022). Multimethod assessment of pubertal timing and associations with internalizing psychopathology in early adolescent girls.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Clinical Science*, *131*(1), 14-25.
- Beltz, A. M. (2018). Gendered mechanisms underlie the relation between pubertal timing and adult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62*(6), 722-728.
- Carneiro, A., Dias, P., & Soares, I. (2016). Risk factors for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in the preschool years: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based on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1½-5.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5*(10), 2941-2953.
- Celio, M., Karnik, N. S., & Steiner, H. (2006). Early maturation as a risk factor for aggression and delinquency in adolescent girls: A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Clinical Practice*, *60*(10), 1254-1262.
- Commisso, M., Temcheff, C., Orri, M., Poirier, M., Lau, M., Côté, S., Vitaro, F., Turecki, G., Tremblay, R., & Geoffroy, M. C. (2021). Childhood externalizing, internalizing and comorbid problems: distinguishing young adults who think about suicide from those who attempt suicide. *Psychological Medicine*, 1-8.

- Crichton, J., Ibisomi, L., & Gyimah, S. O. (2012). Mother-daughter communication about sexual maturation, abstinence and unintended pregnancy: Experiences from an informal settlement in Nairobi, Kenya. *Journal of Adolescence*, 35(1), 21-30.
- Crockett, L. J., Carlo, G., Wolff, J. M., & Hope, M. O. (2013). The role of pubertal timing and temperamental vulnerability in adolescents' internalizing symptom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5(2), 377-389.
- Deardorff, J., Cham, H., Gonzales, N. A., White, R., Tein, J. Y., Wong, J. J., & Roosa, M. W. (2013). Pubertal timing and Mexican-origin girl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symptoms: The influence of harsh parenting. *Developmental Psychology*, 49(9), 1790-1804.
- Duchesne, S., & Ratelle, C. F. (2014). Attachment security to mothers and fathers and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depressive symptoms in adolescence: Which parent for which trajector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3(4), 641-654.
- Eley, T. C., Liang, H., Plomin, R., Sham, P., Sterne, A., Williamson, R., & Purcell, S. (2004). Parental familial vulnerability, family environment, and their interactions as predictors of depressive symptoms in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43(3), 298-306.
- Ellis, B. J. (2004). Timing of pubertal maturation in girls: an integrated life history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30(6), 920-958.
- Elo, A. L., Leppänen, A., & Jahkola, A. (2003). Validity of a single-item measure of stress symptoms. *Scandinavian Journal of Work, Environment & Health*, 29(6), 444-451.
- Gaysina, D., Richards, M., Kuh, D., & Hardy, R. (2015). Pubertal maturation and affective symptoms in adolescence and adulthood: Evidence from a prospective birth cohort.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7(4), 1331-1340.
- Ge, X., & Natsuaki, M. N. (2009). In search of explanations for early pubertal timing effects 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8(6), 327-331.
- Graber, J. A. (2013). Pubertal timing and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in adolescence and beyond. *Hormones and Behavior*, 64(2), 262-269.

- Grogan, S. (2006). Body image and health: Contemporary perspectives.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1*(4), 523-530.
- Grower, P., Ward, L. M., & Beltz, A. M. (2019). Downstream consequences of pubertal timing for young women's body beliefs. *Journal of Adolescence, 72*, 162-166.
- Hamlat, E. J., McCormick, K. C., Young, J. F., & Hankin, B. L. (2020). Early pubertal timing predicts onset and recurrence of depressive episodes in boys and girl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61*(11), 1266-1274.
- Helfert, S., & Warschburger, P. (2011). A prospective study on the impact of peer and parental pressure on body dissatisfaction in adolescent girls and boys. *Body Image, 8*(2), 101-109.
- Jackson, T., & Chen, H. (2008). Sociocultural influences on body image concerns of young Chinese male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23*(2), 154-171.
- Jones, D. C., & Crawford, J. K. (2006). The peer appearance culture during adolescence: Gender and body mass variation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5*(2), 257-269.
- Kline, R. B. (2010).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The Guilford Press.
- Littman, A. J., White, E., Satia, J. A., Bowen, D. J., & Kristal, A. R. (2006). Reliability and validity of 2 single-item measures of psychosocial stress. *Epidemiology, 17*(4), 398-403.
- Loukas, A., Cance, J. D., & Batanova, M. (2016). Trajectories of school connectedness across the middle school years: Examining the roles of adolescent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Youth & Society, 48*(4), 557-576.
- Marceau, K., Abar, C. C., & Jackson, K. M. (2015). Parental knowledge is a contextual amplifier of associations of pubertal maturation and substance us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4*(9), 1720-1734.
- Marengo, D., Longobardi, C., Fabris, M. A., & Settanni, M. (2018). Highly-visual social media and internalizing symptoms in adolescence: The mediating role of body image concern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82*, 63-69.
- Mendelson, B. K., & White, D. R. (1982). Relation between body-esteem and

- self-esteem of obese and normal children. *Perceptual and Motor Skills*, 54(3), 899-905.
- Mendle, J., Turkheimer, E., & Emery, R. E. (2007). Detrimental psychological outcomes associated with early pubertal timing in adolescent girls. *Developmental Review*, 27(2), 151-171.
- Moss, E., Bureau, J. F., Béliveau, M. J., Zdebik, M., & Lépine, S. (2009). Links between children's attachment behavior at early school-age, their attachment-related representations, and behavior problems in middle childhood.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3(2), 155-166.
- Mrug, S., Elliott, M. N., Davies, S., Tortolero, S. R., Cuccaro, P., & Schuster, M. A. (2014). Early puberty, negative peer influence, and problem behaviors in adolescent girls. *Pediatrics*, 133(1), 7-14.
- Muth, J. L., & Cash, T. F. (1997). Body-image attitudes: What difference does gender make?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7(16), 1438-1452.
- Nelson, T. D., Kidwell, K. M., Nelson, J. M., Tomaso, C. C., Hankey, M., & Espy, K. A. (2018). Preschool executive control and internalizing symptoms in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6(7), 1509-1520.
- Oerter Klein, K. (1999). Precocious puberty: who has it? Who should be treated? *The Journal of Clinical Endocrinology & Metabolism*, 84(2), 411-414.
- Okano, L., Jeon, L., Crandall, A., & Riley, A. (2020). Differential effects of internalizing behaviors on academic functioning for girls versus boys: An analysis of developmental cascades from elementary to high school.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32(2), 751-764.
- Park, H. Y., Heo, J., Subramanian, S. V., Kawachi, I., & Oh, J. (2012). Socioeconomic inequalities in adolescent depression in South Korea: A multilevel analysis. *PLoS ONE*, 7(10), e47025.
- Petersen, I. T., Lindhiem, O., LeBeau, B., Bates, J. E., Pettit, G. S., Lansford, J. E., & Dodge, K. A. (2018). Development of internalizing problems from adolescence to emerging adulthood: Accounting for heterotypic continuity with vertical scaling. *Developmental Psychology*, 54(3), 586-599.
- Pinyerd, B., & Zipf, W. B. (2005). Puberty—timing is everything!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20(2), 75-82. <https://doi.org/10.1016/j.pedn.2004.12.011>

- Rudolph, K. D., Troop-Gordon, W., Lambert, S. F., & Natsuaki, M. N. (2014). Long-term consequences of pubertal timing for youth depression: Identifying personal and contextual pathways of risk.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6*(4pt2), 1423-1444.
- Schoelwer, M. J., Donahue, K. L., Didrick, P., & Eugster, E. A. (2017). One-year follow-up of girls with precocious puberty and their mothers: Do psychological assessments change over time or with treatment? *Hormone Research in Paediatrics, 88*(5), 347-353.
- Seo, M. Y., Kim, S. H., Juul, A., & Park, M. J. (2020). Trend of menarcheal age among Korean girls.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35*(49), e406.
- Skoog, T., & Stattin, H. (2014). Why and under what contextual conditions do early-maturing girls develop problem behaviors?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8*(3), 158-162.
- Sooki, Z., Shariati, M., Chaman, R., Khosravi, A., Effatpanah, M., & Keramat, A. (2016). The role of mother in informing girls about puberty: A meta-analysis study. *Nursing and Midwifery Studies, 5*(1), e30360.
- Steinberg, L. (1987). Impact of puberty on family relations: Effects of pubertal status and pubertal tim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3*(3), 451-460.
- Stojković, I. (2013). Pubertal timing and self-esteem in adolescents: The mediating role of body-image and social relations.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0*(3), 359-377.
- Stone, L. L., Mares, S. H., Otten, R., Engels, R. C., & Janssens, J. M. (2016). The co-development of parenting stress and childhood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38*(1), 76-86.
- van Lier, P. A., & Koot, H. M. (2010). Developmental cascades of peer relations and symptoms of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s from kindergarten to fourth-grade elementary school.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2*(3), 569-582.
- Veldhuis, J., Konijn, E. A., & Seidell, J. C. (2014). Negotiated media effects. Peer feedback modifies effects of media's thin-body ideal on adolescent girls. *Appetite, 73*(1), 172-182.
- Vines, A. I., Nguyen, T. T. X., Ta, M., Esserman, D., & Baird, D. D. (2011). Self-reported daily stress, squelching of anger and the management of daily stress and the prevalence of uterine leiomyomata: The ultrasound

screening study. *Stress and Health*, 27(3), e188-e194.

Williams, J. M., & Currie, C. (2000). Self-esteem and physical development in early adolescence: Pubertal timing and body image.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0(2), 129-149.

Zimmer-Gembeck, M. J., Webb, H. J., Farrell, L. J., & Waters, A. M. (2018). Girls' and boys' trajectories of appearance anxiety from age 10 to 15 years are associated with earlier maturation and appearance-related teasing.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30(1), 337-350.

- 논문접수 8월 4일 / 수정본 접수 9월 2일 / 게재 승인 9월 14일
- 교신저자: 은선민,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zzbprss@snu.ac.kr

Abstract

Effect of Teen Girls' Pubertal Timing on Internalizing Problems: Body Image and Maternal Stress as Mediators

Hayeon Park, Sunmin Eun, Yookyeong Park, Kangyi Lee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pubertal timing on internalizing problems among teenage girls, and verified the role of body image and maternal stress as potential mediators. Accordingly, 549 pairs of Grade 5 girls and their mothers were selected as participants from 12th year data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The participants were categoriz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pubertal timing: early-maturing and normal maturing.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 First, body image and maternal stres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Compared to normally-maturing girls, early-maturing girls displayed worse body image and higher levels of maternal stress. Second, the calculated model fit indice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were reasonable. Interestingly, girls' pubertal timing had only a significant indirect effect on internalizing problems. Third, the mediating effects of body image and maternal stres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Our result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the vulnerability of early-maturing girls. The findings also suggest that efforts to support early-maturing girls to develop positive body image and encourage their mothers to manage daily stress would be an effective way to prevent girls from internalizing problems.

Keywords: puberty, early maturation, body image, maternal stress, internalizing problems